

문학산책 · 2026년 9월 12일 · 6명

너무 시끄러운 고독

35년의 압축기 앞에서

프라하 지하실에서 35년째 폐지를 압축하며 책을 건져 읽는 한탸. 짧은 소설을 두고 고독, 쓸모, 그리고 밖에서 밀려오는 변화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펼친 책	예전엔 중간에 덮었는데, 이번엔 보였다
칙칙하지 않은 고전	늙어서 한 번쯤 살아 보고 싶은 삶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고독은 피하는 걸까, 지키는 걸까
거대한 압축기	변화는 늘 바깥에서 온다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으로 9월 12일 토요일 밤, 문학산책에서 모였습니다. 손에 쥐면 얇은 책인데, 이야기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예전엔 중간에 덮었던 책

첫 이야기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전에 읽다가 중간쯤에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덮었던 책. 이번에 모임 때문에 끝까지 읽으니 그제야 한탸가 보이더라는 이야기였어요. 함께 읽기로 약속한 책이라서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전인데, 칙칙하지 않다

고전이라고 하면 어둡고 칙칙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책은 달랐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지하실 일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쏟아지는 폐지 더미에서 보물 찾듯 책을 건져 자기만의 생각을 쌓아 가는 사람. 그리고 35년을 한결같이 같은 일을 해 온 성실함. "늙었을 때 한 번쯤 이렇게 살아 볼 수 있는 삶을 대신 보여 주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폐지 꾸러미마다 명화를 넣어 작은 작품으로 만드는 장면도 함께 떠올렸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물음도 있었습니다. 한탸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돌볼 가족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면 이 삶이 가능했을까. 최근에 읽은 소설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왜 늘 남자인지도 짚어 보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

제목의 '고독'에서 이야기가 번졌습니다. 요즘 SNS에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참 많지요. 그 말은 가족을 떠나고 싶다는 뜻이라기보다, 밥 차리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내 공간에서 하고 싶은 걸 편히 하고 싶다는 뜻 아닐까. 반대로 정말 혼자인 사람들은 혼자 있기 싫은데 세상이 자기를 혼자 둔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탸의 고독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에게 고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책 속에서 예수와 노자가 나란히 나오는 장면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이고 혁명적인 예수, 노인이고 물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노자. 한탸는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서 있었을까요.

책은 왜 읽을까

"책을 읽는 이유는 현실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어서"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탸가 지하실의 냄새를 잊으려고 책에 빠져들었듯, 우리도 책을 펼치는 동안에는 잠시 현실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압축기 — 변화는 바깥에서 온다

방장은 6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브니에 거대한 신식 압축기가 들어서면서 책을 읽으며 천천히 일하던 시간은 사라지고, 효율과 속도만 남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일하던 한탸와 우유를 마시며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대비. 자기가 더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나씩 갖게 되며 무력감에 빠지는 장이라고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새 기술이 들어오면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지, 사람이 설 자리는 어디인지. AI 에이전트가 일을 대신하고, 언젠가는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설득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다. 충격이 한 번 오면 바꾸지 않을 수 없다." 35년 동안 바깥의 변화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인 타격은 상당했을 거라는 데 다들 공감했습니다.

패배였을까, 존엄이었을까

마지막 질문은 한탸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한 사람의 패배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존엄을 지켜 낸 것으로 읽을 것인가.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 "나에게 그런 변화가 온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까"를 생각해 보게 된 밤이었어요.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12장입니다. 줄거리와 인물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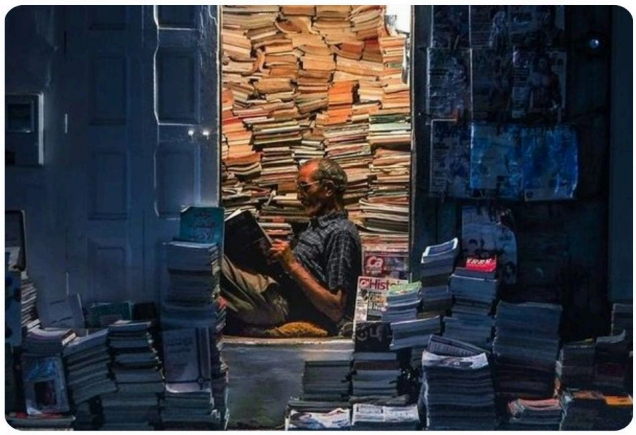


2 / 12

01

폐지 압축이 곧 “나의 러브스토리”

- 한타는 35년간 프라하의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폐지를 압축해 온 노동자.
- 비자발적 지식의 주입 : 원해서가 아니라, 압축통에 쏟아지는 책을 읽으며 맥주처럼 지식이 흘러들임.
- 지하 작업실의 풍경 :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 파리·쥐·곰팡이 속에 왕립도서관의 장서와 고전
- 꾸러미 제작이라는 의식 : 폐지 더미 중심(심장)에 구출한 책과 명화 복제품을 묻어, 꾸러미를 하나의 무덤·예술품으로 만듦
- 침대 위의 책들 귀가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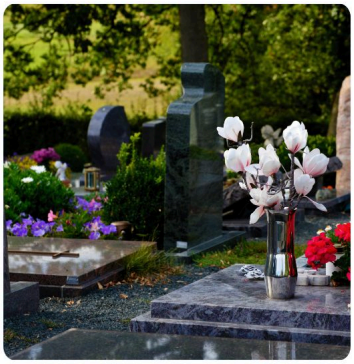
02

진흙탕의 왕실 도서와 무밭의 유골

- 전쟁의 전리품으로 쏟아져 들어온 프로이센 왕실 도서 >> 납작한 꾸러미로 압축 >> 한타만 그 무게를 알아봄
- 무밭에 뿌려진 어머니의 유골 >> 무를 맛있게 먹음
- 압축기 속 생쥐들의 참상
- 프라하의 하수구와 시궁창에서의 쥐들이 생사를 건 대전쟁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03

예수와 노자의 긴장, 그리고 똥 범벅이 된 첫사랑 만차

- 만차(Manča) : 한탸의 청춘 시절 첫사랑
- 화장실과 리본 사건 : 똥 묻은 리본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홀 전체의 조롱거리 >> 트라우마로 인해 둘의 사랑은 파탄
- 스키장에서 벌어진 만차의 두 번째 사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 (Jesus) :

- 불타오르는 열정을 품은 격정적인 청년
- 상승과 비약 (십자가, 부활, 혁명)
- 행동주의와 개입

노자 (Laozi) :

- 물러섬의 지혜를 체득한 백발의 노인
- 하강과 침잠 (골짜기, 물, 심연)
-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관조

04

지하의 성역과 야만의 공존

- 폐지 압축기 속에서 꽃피운 지적 충만함
- 파괴되는 활자들 사이에서 마주한 모순적 진실



폐기된 책들의 성소

지하 작업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책 더미 속에서 진귀한 명저들을 건져내며 영혼의 안식을 찾음



지식의 파괴와 재생

인간의 사상이 담긴 책을 육중한 압축기로 부수며 동시에 그 활자들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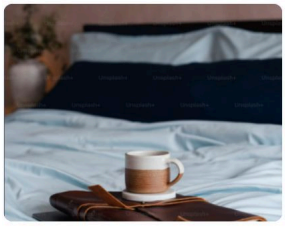
한탸의 고독한 사명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책 꾸러미마다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으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증명함

05

은밀한 도둑질과 붕괴 직전의 침실, 그리고 집시 처녀의 사랑

- 지하실에서 구출해 집으로 날라온 수만 권의 책더미
- 전쟁의 비극 속으로 사라진 순수한 사랑의 기억.



✔ 침대 위 2톤의 책더미

35년간 파지통에서 건져내 방 안 가득 쌓아 올린 책의 탑.
언제 무너져 내려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붕괴의 공포 속에서,
한탸는 역설적이게도 책에 깔려 죽는 운명을 예감



✔ 종이연과 집시 처녀

글도 모른 채 따뜻한 온기로 한탸의 곁을 지켜준 어린 연인.
하늘 높이 종이연을 날리며 자유를 꿈꿨으나,
나치의 가스실 굴뚝 연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 비극.

06

거대 압축기와 장인의 몰락

부브니의 최신식 대형 압축 시설에서 목격한 효율성의 폭력과 아날로그적 세계의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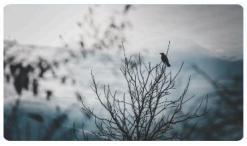
부브니의 최첨단 거대 압축기

- 프라하 교외 부브니의 거대한 최신형 폐지 처리 시설 견학
- 미개봉 장서와 백과사전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압도적 기계음
- 책의 개별적 가치가 대량 파괴와 화물 규격화로 대체됨



새로운 시대의 규격화된 노동자들

- 맥주 대신 우유를 마시고 깨끗한 노란 장갑을 낀 젊은 노동자들
- 책의 문장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기계 부품처럼 일하는 효율성
- 사유와 감상이 거세된 차가운 기술 관료주의적 노동 방식



한탸의 실존적 공포와 멸종 선고

- 35년간 쌓아 올린 장인적 압축 작업 방식의 완전한 무력화
- 거대한 기계 문명 앞에서 느끼는 극심한 현기증과 구역질
- 자신이 멸종을 앞둔 '과거의 유물'로 전락했다는 비극적 자각

07

추락과 박탈, 백지의 형벌

35년 성소였던 지하실에서 쫓겨나 글자 없는 침묵의 세계로 내몰린 한탸의 붕괴



거대 기계의 충격으로 노동 의욕을 상실한 채 맥주만 들이켜며 지하실을 폐지 쓰레기 더미로 방치함

작업의 마비와 무기력



밀린 작업을 확인한 폐지 수거소 소장의 격노와 함께 35년간 지켜온 작업 현장에서 강제 퇴출 선고를 받음

소장의 질타와 해고 통보



책을 읽지 않고 기계적 속도로만 폐지를 집어던지는 젊은 인부 둘에게 성소와 기계를 완전히 빼앗김

새로운 인부들의 점령



활자가 없는 깨끗한 백지를 묶는 곳으로 쫓겨나며, 살아있는 지혜 대신 영혼의 질식(사형 선고)을 마주함

백지(포장지) 부서로 좌천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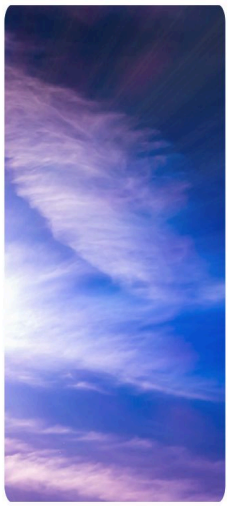
스스로 책이 된 한탸

백지의 폭력을 거부하고 압축기 속에서 완성한 마지막 성소

"내가 자랑스럽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사랑받는 대상은 모두 지상의 천국 한복판에 있다. "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겪는 것일까?"




생각해봅시다...
시끄러운 고독
무엇이 그토록 시끄러웠고, 왜 고독을 택했는가?
비천함과 숭고함의 공존]
한 인간의 영혼을 품위 있고 고결하게 지켜 주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나요?
부브니의 거대 압축기 VS 한타의 꾸러미
우리는 사유와 영혼을 담아 일하는 '한타'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주어진 성과를 위해 감정을 거세한 채 일하는 '부브니의 노동자'에 가까운가요?
백지(WHITE PAPER)의 공포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백지와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온전히 나 자신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비극적 결말
소멸을 통한 존엄의 완성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의 패배인가?
만차 VS 집시 처녀
현실 적응해 살아남은 만차와, 글도 모르는 따스한 안식을 건내는 집시 처녀 중 어떤 인물에게 더 마음이 가시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에스파다 책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그날의 한 줄

여러분이 고른 한 줄도 톡방에 남겨 주세요. 홈페이지 '책속의 한줄'에 함께 담겠습니다.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의 완독 길잡이·진행 자료: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1ee92d79.html